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

신 호 철**

〈차 례〉

1. 서론
2. 한국어 교재의 발음 교육 현황
 - 2.1. 종합교재의 유음 교육 내용
 - 2.2. 전문교재의 유음 교육 내용
3.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유음의 발음
 - 3.1. 유음의 발음 유형
 - 3.2. 오류 유형 분석
4. 결론 및 대안

1. 서론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인해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어로써의 한국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대규모의 학술대회가 연일 연구자와 교사들을 시달리게 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보이는 현상을 바탕으로 기술된다. 즉,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유음을 발음하는 데 탄설음¹⁾ [r]을 설측

* 본 논문은 2002년 9월 14일(토)에 있었던 국어교육학회 제21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글을 빌어 토론을 해 주신 조수진 선생님과 조언을 해 주신 이관규, 문영진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홍익대학교 강사(kkokku@hanmail.net)

1) 한국어의 유음을 '탄설음(彈舌音)'과 '설측음(舌側音)'으로 구분한다. 즉, 음절 초성

음 [l]로 발음하거나 그와 유사한 발음 오류를 보이는 것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현 한국어 교재들을 바탕으로 발음 학습 내용들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어의 유음 발음에 대한 학습 내용의 구성을 각 교재 별로 고찰해 본다. 또한 한국어 교재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교재와, 발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발음 전문 교재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유음 발음 오류를 분석한다. 그에 앞서 한국어의 유음이 발음되는 환경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6가지로 분류된 유형 중에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보이는 오류 유형은 3가지 유형인데, 그 대표적인 원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음 실현의 차이에 있다. 즉 한국어의 유음에는 설측음 [l]과 탄설음 [r] 두 가지가 있는데 반하여 중국어의 음운체계에는 설측음 [l]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 음운체계의 탄설음 [r]의 부재로 인하여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의 탄설음 [r]을 설측음 [l]로 발음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3장에서 분석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유음 발음의 오류 현상을 토대로 한국어 교재에서 유음 발음의 학습 내용에 첨가되거나 보충할 것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다.

의 탄설음과 음절 종성의 설측음으로 구분한다. 초성에 오는 'ㄹ'은 '탄설음'과 '설전음(舌顚音)'이 있는데, 설전음은 혀끝을 진동시켜 나는 소리로 국어에는 흔하지 않다.(이관규, 2002 : 84)

2. 한국어 교재의 발음 교육 현황

2.1. 종합 교재의 유음 교육 내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외국인 가장 먼저 접하게 될 한국어 텍스트는 한국어 교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의 내용들을 배워 나아가기 시작한다. 학습 내용이 어느 영역이든 관계없이 한국어의 자모(字母)와 그 자모의 발음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실제로 기본적인 정도의 수준에서만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병행하여 교재를 편집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음에 대한 부분은 본문의 첫머리에 자모를 소개하면서 발음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발음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재는 두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91, 199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5) - 이하 '표준 발음'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연수부에서 출간된 교재를, '한국어발음'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출간된 교재를 지칭함)²⁾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유음에 대한 발음을 다루는 특성상 많은 한국어 교재 중에서 유음에 관련된 부분만을 고찰하였다.³⁾

다음은 각 초급 교재 중에서 유음과 관련된 부분만을 골라서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
- 2) 이외에 개인의 연구물로 유만근(1997)이 있는데, 1부 발음편에서는 표준 한국어 기본음절표 및 한국어 자모에 대한 발음을 로마자표기와 함께 실었고, 2부 독본편에서는 텍스트 내용을 한글-로마자틀 대조하여 표기하였으며, 장음(長音)과 된소리를 독본에 표기하였다. 이 책은 첫음절의 모음이 장음임을 또 초성이 된소리됨을 나타내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한국어를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자모 발음의 설명에 대한 것보다는 읽기에 치우친 독본의 성격이 강하다.
- 3) 한국어 교재의 전반적인 발음 교육에 대한 현황과 분석은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한재영(2001)에서는 종합적으로 교재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유음(ㄹ)의 기본 교육 내용

교재	항목	이름	음가	쓰는법	음절표	받침	자음 분류표	예		비고
								초성	종성	
고려대 한국어1	리울 [riul]	[r/l]	○	×	○	×	라디오, 우리, 머리, 소라, 기 러기, 유리	달, 가을, 딸 기, 얼굴, 빨 래, 벌레, 달 리다, 올라가 다		
고려대 표준 발음 1,2	리울 [riul]	[r](-l)	×	×	○	○	라디오, 우리, 머리, 소라, 기 러기, 유리, 보 라	알, 얼, 올, 울, 달, 가을, 딸기, 얼굴, 빨래, 벌레		
서울대 (2001) 한국어1	리울	[l]	×	○	×	×	다리, 우리, 나 라(그림 첨가)	쌀, 발, 달, 팔 (그림 첨가)	각 과에 발음연습	
서울대 (2000) 한국어1	×	[r][l]	○	○	×	×	사람, 바람, 다 리	달, 말, 일, 불	연 음 규 칩 설명있음	
연세대 한국어1	리울	[l]	○	○	○	○	×	쌀		
연세대 한국어읽기1	리울 [riul]	[r/l]	○	○	○	○	나라, 다리, 가 로, 라디오, 기 러기	쌀, 가을, 딸 기, 길, 실, 말, 글, 잘	각 과에 발음연습	
연세대 한국어발음	리울	[r][l] 그림 삽입	×	○	○	○	노루, 유리, 나 라, 요리, 라디 오, 도로, 교류, 다리, 거리, 기 러기	달, 물, 얼굴, 팔, 지하철, 수술, 내일, 일기, 길, 굴 비, 살구		
이대 한국어 I	×	[r][l]	○	○	×	×	라면, 다리, 모 자라다	벌레, 달, 빨 래	각 과에 발음연습	
가나다 KOREANI	리울 [riul]	[r][l]	○	○	○	○	거리, 고려, 다리 , 오리, 요리, 우 리, 기러기	길, 말, 쌀, 가을, 교실, 달력, 서 울, 일본, 불고 기		
한림(이상역) 한국어1	riul med:-r- fin:-l	ini:-r med:-r- fin:-l	○	○	×	×	보리	별	각 과에 발음연습	

고려대에서 출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1」과 「표준발음」 중에서, 종합적인 교재라 할 수 있는 「한국어1」에는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별로 없다. 한글 자모를 다루면서 각 자음의 '자형, 음가, 이름, 쓰는 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어학연구소(2001)에서 출간된 「한국어1」에서는 본문이 아닌 예비편에서 기본적인 한글의 자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음 'ㄹ'의 음가를 [l]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고, 받침에 대한 설명항도 없으며, 읽기 연습으로 'ㄹ' 받침 설명을 같음하였다. 그러나 예들마다 해당 그림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보조하였고, 본문의 각 과마다 발음 연습항을 두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발음 학습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서울대 어학연구소(2000)에서 출간된 「한국어1」은 발음 전문교재가 아닌 한국어 종합 교재로서 연음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종합 교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연세대에서 출간된 「한국어1」 역시 유음 'ㄹ'의 음가로 [l] 하나만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어읽기1」에서는 [r]과 [l]을 모두 제시하였다. 「한국어읽기1」은 읽기학습 전문교재로서 발음을 기본으로 학습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교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한국어1」보다는 발음편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대에서 출간된 「한국어1」에서는 받침 'ㄹ'에 대한 설명항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ㄹ'의 음가를 [r]과 [l]로 나누어 각 음가에 해당하는 초성과 종성에서의 유음 'ㄹ'에 대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과마다 발음 연습항을 두어 학생들의 발음 연습을 도모하고 있다.

2.2. 전문 교재의 유음 교육 내용

한국어 발음에 관한 전문 교재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고려대에서 출간된 「표준발음1·2」와 연세대에서 출간된 「한국어발음」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 연세대에서 출간된 「한국어읽기1·2」교재를 추가하여 이 교재들에서 유음과 관련된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자.

먼저 「표준발음1·2」에서는 우선 설측음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 오면 'ㄹ'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2) 가. ㄹ+ㄹ→[ㄹㄹ] : 올라가요, 빨리 달려요, 빨래, 설렁탕, 걸려요
 나. ㄴ+ㄹ→[ㄹㄹ] : 난로, 신라, 문래동, 신랑, 연락
 다. ㄹ+ㄴ→[ㄹㄹ] : 설날, 줄넘기, 달님, 딸 낳았어요.

또한 「표준발음2」에서는 'ㄹ' 첨가'라 하여 '-려고, -려면, -려다가' 등의 '려' 앞에 동사의 어미에 'ㄹ'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 (3) 가. 가려고 [갈려고/갈라고/갈라구]
 나. 입으려면 [입을려고/입을라고/입을라구]
 다. 하려면 [할려면/할라면/할라문]
 라. 앉으려면 [앉을려면/앉을라면/앉을라문]
 마. 먹으려다가 [먹을려다가/먹을라다가]

「한국어발음」에서도 역시 설측음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4) /ㄴ/+/ㄹ/, /ㄹ/+/ㄴ/ → [ㄹ]+[ㄹ], [ㄹ]+[ㄹ]
 천리 [철리], 일년 [일련]

또한 「한국어발음」에서 역시 'ㄴ'첨가 현상의 하나로 앞 단어 접두사의 종성이 자음이므로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이 첨가되고, 이것이 다시 설측음화되어 발음됨을 설명하고 있다.

4) 이 외에도 까닭없이 'ㄹ'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러'가 결합될 때 'ㄹ'음이 첨가되는 경우(나더러→[날더러], 저더러→[절더러], 너더러→[널더러])와 'ㄹ'불규칙 동사에서 'ㄹ'음이 첨가되는 경우(호르고→[홀르고], 다르고→[달르고], 모르고→[몰르고])가 있다.(김성환 : 1992)

(5) 가. 받침 아래가 '이'로 시작될 때

ㄹ받침 : 여기서 'ㄹ'이 'ㄷ' 뒤에서 자음동화하여 [ㄷ] 로 발음된다.
 술+앞→술넛 [술립], 열+일곱→열 넉곱 [열 립곱]
 할+일→할 넛 [할 립], 들+일→들 넛 [들 립]
 설+익다→설 너다 [설 립따], 잘+입다→잘 님다 [잘 립따, 자 립]

나. 받침 아래가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

꿀+엿→꿀넛 [꿀련], 불+여우→불너우 [불려우]
 물+엿→물넛 [물련], 서울+역→서울넛 [서울려]
 스물+여섯→스물너섯 [스물려션], 먹+엿→먹을 넛 [머글 련]
 휘발+유→휘발뉴 [휘발류]

「한국어읽기1·2」에서는 각 과의 끝부분에 발음 연습항을 두어 발음 학습을 돕고 있다. 이 교재 역시 설측음화 현상과 'ㄹㄹ'이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이 올라갈수록 발음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6) 흐름소리 되기 /ㄴ/ → [ㄷ] / /ㄹ/, /ㄷ/ /
 /ㄴ/이 /ㄷ/ 앞이나 뒤에 위치하면 흐름소리 [ㄷ]로 발음한다. - 譯
 신라 [실라 silla] 불국사는 신라 때 만든 절입니다.
 난로 [날로 nallo] 겨울에는 난로가 필요합니다.

(7) 흐름소리 이음

/ㄷ/ 받침 다음에 오지 않고 /ㄹ/이 초성에 올 경우에는 [r]로 발음한다.(나라) - 譯
 그러나 /ㄷ/ 받침 다음에 /ㄹ/ 초성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l]로 발음한다.(벌레) - 譯
 벌레 [pelle] 가을에 풀벌레가 옵니다.
 빨래 [p'alle] 오늘은 한 시간동안 빨래를 했습니다.

3.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유음의 발음

한국어의 유음 'ㄹ'은 그 문자 표기는 한 가지이지만 발음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받침이나 /ㄹ/ 받침 뒤의 /ㄹ/을 [l]로 발음하는 설측음과, 음절의 초성에서 [r]로 발음하는 탄설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유음 'ㄹ'에 해당하는 발음이 한국어의 설측음에 해당하는 [l]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⁵⁾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의 유음, 특히 탄설음 [r]의 발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어의 탄설음 [r]을 설측음 [l]로 발음하여 인접한 음절의 발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유음의 발음 환경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의 유음을 발음할 때 범하는 오류들을 유형화해보고자 한다.

3.1. 유음의 발음 유형

한국어에서 유음의 발음 환경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⁶⁾

그 첫 번째 유형으로 [Vowel] + [l]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단어의 마지막 음절의 받침에 /ㄹ/이 오는 경우로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이 발음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1유형 : [Vowel] + [l]

예 : 말, 달, 불, 물, 선물, 가을 ……

두 번째 유형은 [r] + [Vowel] 유형으로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에 /

5) 추이진단(2001), 308쪽 참고.

6) 이 여섯 가지 유형은 음운변동 현상을 거친 최종 발음 형태를 고려한 것이다.

ㄹ/이 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단어는 두음법칙이라는 한국어의 특성상 혼하지 않은 음절형이다.

(9) 2유형 : [r] + [Vowel]

예 : 라면, 라디오

세 번째 유형이 [l] + [l] 유형으로, 앞음절 받침의 발음이 [l]이고 이 받침의 영향을 받아 다음 음절의 초성도 역시 [l]로 발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ㄹ/의 앞에 놓인 /ㄴ/이나, /ㄹ/ 받침 뒤에 첨가된 /ㄴ/이 유음화 과정을 겪어 [l] + [l]로 발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10) 3유형 : [l] + [l]

예 : 골라, 별로, 홀러, 신라, 천리, 빨래, 일년 ……

이 유형은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자신 있게 발음하는 유형으로 중국어의 유음과 동일한 설측음의 연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은 [l] + [Consonant] 유형으로 앞음절 받침이 [l]이고 다음 음절 초성에 /ㄹ/을 제외한 자음이 오는 경우이다.

(11) 4유형 : [l] + [Consonant]

예 : 펄펄, 알밤, 얼굴, 얼마, 굴비, 살구, 딸기 ……

이 유형도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유형으로 한국어의 받침 /ㄹ/이 설측음 [l]로 발음되기 때문에 중국어 모어 화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 번째 유형이 [l] + [Vowel] 유형으로 앞음절의 받침이 /ㄹ/이고 그 다음 음절의 초성이 /ㄹ/인 경우이다.

(12) 5유형 : [l] + [Vowel]

예 : 가. 아이들이 뛰어 놓고 있습니다.

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대요
 다.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라. 또 말이 없었습니다.

이 유형은 단어 끝음절에 /ㄹ/ 받침을 가진 실사에 /ㄷ/로 시작하는 허사가 결합된 구조에서만 보이는 유형으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발음에서 오류를 보이는 유형이다.

다음은 마지막 유형으로 [Vowel]+[r]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어중에서 앞음절의 받침이 /ㄷ/이고 다음 음절의 초성에 /ㄹ/이 오는 경우이다.

(13) 6유형 : [Vowel]+[r]

예 : 가. 그림, 흐르다, 우리, 사람, 아리랑, 꼬끼리, 젓가락, 꼬부랑
 나. 고개를 넘어간다
 다. 우리 사람 자장면 좋아해 ……

이 유형은 (13.가)와 같이 단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3.나)와 같이 실사에 /ㄹ/ 초성을 가진 허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유형 역시 중국어 모어 화자가 오류를 보이는 발음 유형이다.

3.2. 오류 유형 분석

앞에서 한국어 유음의 발음 환경을 분류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의 유음을 발음할 때 생기는 오류 유형을 분석해 보자.

위의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오류를 보인 유형은 2유형([r]+[V])과 5유형([l]+[V]), 6유형([V]+[r])이다. 2유형은 5유형이나 6유형보다는 오류 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한국어에 그 유형의 단어들이 그리 많지 않고, 주로 1음절어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유형의 유음은 탄설음 [r]로 발음해야 하는 것들

이다.

(14) 가. 라면 → [ramjən], 라디오 → [radio]⁷⁾

나. 라면 → [lamjən], 라디오 → [ladio]

2유형([r]+[V])의 유음은 (14.가)와 같이 탄설음 [r]로 발음해야 하는 것인데, 일부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중국어의 설측음 [l]의 영향 때문인지 (14.나)와 같이 탄설음 [r]을 설측음 [l]로 발음하는 오류를 보인다.

5유형([l]+[V])은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발음의 오류를 많이 보인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다른 특성이 있다. 즉 실사와 허사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음이라는 점이다. 이 유형들의 최종 발음 형태는 6유형으로 분류해도 될 것이다.

(15) 아이들이 → [아이드리], 낫말은 → [남말른],

물었습니다 → [무러쑤니다], 말이 → [마리]

(15)와 같이 5유형의 최종 발음 형태는 6유형과 같다. 그러나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5유형을 발음할 때에 보이는 오류는 6유형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를 달리 하였다.

(16) 아이들이 → [아이들리], 낫말은 → [남말른],

물었습니다 → [물러쑤니다, 물어쑤니다], 말이 → [말리, 말이]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5유형을 발음할 때 보이는 오류가 바로 예 (16)과 같다. 이것은 역시 중국어의 설측음 [l]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 먼저 앞음절의 받침 [l]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하면서 그 편의를 위해 [l]음을 더 첨가하는 ‘르 첨가’ 현상과 유사하다고 파악

7) 전영우(2001), 458-460쪽 참고.

된다. 즉 모국어의 발음 습관 때문에 자신들의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음절의 빈자리에 설측음 [l]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경향으로 생각된다.⁸⁾

6유형([V]+[r])은 5유형과 다른 발음 오류 형태를 보인다. 5유형이 뒤 음절에 설측음 [l]을 첨가하는 오류를 보인 유형이라면, 6유형은 이와는 반대로 앞 음절에 설측음 [l]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오류 형태를 보인다.

- (17) 그림 → [giːrim], 흐르다 → [hirida], 코끼리 → [kog'iri],
우리 → [uri], 사람 → [saram], 아리랑 → [ariranj],
꼬부랑 → [g'oburanj]

6유형의 유음들은 (17)과 같이 모두 탄설음 [r]로 발음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들을 탄설음 [l]로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

- (18) 그림 → [giːllim], 흐르다 → [hillida], 코끼리 → [kog'illi],
우리 → [ulli], 사람 → [sallam], 아리랑 → [allilanj],
꼬부랑 → [g'obullanj]

6유형은 탄설음 [r]을 설측음 [l]로 발음하면서 앞 음절의 받침에 설측음 [l]을 첨가해서 발음한다. 즉 5유형과 마찬가지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5유형의 발음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유형도 역시 중국의 모국어 영향으로 발음 편의와 임의적인 'ㄹ'음의 첨가에서 오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인의 발음 습관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앞의 각주 3)에서 제시했던 "흐르고→[홀르고],

8)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발음 습관에서도 나타난다. "할 일 → [하릴, 할릴], 볼 일 → [볼릴], 절약 → [절랴], 촬영 → [촬령]." 이는 받침 'ㄹ'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이어져 발음될 때 받침 소리를 발음하려는 의식 때문에 'ㄹ'이 첨가되고 유음화되어 [l]이 첨가되어 발음된다.(김성환:1992)

다르고→[달르고]”로 아무런 이유 없이 ‘ㄹ’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한국인의 발음 습관과도 상통한다고 보여진다.⁹⁾

4. 결론 및 대안

본 고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유음의 발음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탄설음 [r]의 발음에 오류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각 장을 정리하며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유음 학습 대안을 제시하며 본고를 마치려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현 한국어 교재들을 대상으로 발음 학습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음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재별로 유음에 대한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교재는 크게 이분화 할 수 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교재와 발음 전문교재(읽기 교재 포함)로 이분화 하였는데, 종합교재에서는 역시 발음 부분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며 교재의 전반부에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해 발음 전문교재에서는 역시 발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나, 유음과 관련하여 본다면 세 교재 모두 설측음화 현상([ㄹㄹ])과 유음의 발음 현상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유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유음 발음의 오류 유형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어의 유음이 발음되는 환경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1유형([Vowel] + [l] : 말), 2유형 ([r] + [Vowel] : 리(哩), 라디오), 3유형([l] + [l] : 별로), 4유형([l] + [Consonant] : 얼굴), 5유형([l] + [Vowel] : 아이들이), 6유형([Vowel] + [r] : 우리, 사람)이 그

9) 허웅(1993)에서는 이러한 음운변동을 “/ㄹ/겹치기”라 설명하였다. 즉 /ㄹ/와 모음 사이에 형태소의 경계가 있을 때, /ㄹ/가 다음 음절로 연음되지 않고 받침으로 발음될 때에는 “할+일→할릴, 볼+일→볼릴, 잘+아이→잘라이”와 같이 /ㄹㄹ/로 겹쳐진다고 설명하고, 또 “호르+어→홀+어→홀러”와 같이 ‘르’불규칙 동사에서도 임의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것이다.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보이는 오류 유형은 2·5·6유형들이다. 2유형은 탄설음 [r]로 발음할 것을 설측음 [l]로 바꿔 발음하는 오류이고, 5유형과 6유형도 역시 탄설음을 설측음으로 바꿔 발음하는 오류이지만, 5·6유형들은 각각 전후 음절들의 받침과 초성에 설측음 [l]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오류 유형들이다.

이러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유음 오류 유형들을 종합하면 중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의 탄설음 [r]을 설측음[l]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음 연습에서의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필요하다. 그 일례로 추이진단(2001)에서는 혀의 긴장도를 낮추고 혀의 앞부분을 빠른 속도로 윗니 뒷부분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계음의 의성어를 흉내내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드르르……”하는 기계음을 따라하게 하여 자연적으로 긴장된 혀의 근육을 풀어 주는 연습도 한국어의 탄설음 [r]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들에서 유음을 교육할 때 제시하는 예들을 분류해서 수록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어의 유음들이 발음되는 모든 환경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류 유형 별로 예들이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한국어의 유음 학습에 있어서 교재를 구성할 때에 반영한다면,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유음 학습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단음절 예들보다는 2음절 이상의 다음절어들을 예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유음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보 학습자에게는 단음절어가 학습하기에 용이하겠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발음 학습에서 실제 배워야 할 것은 추상적인 음소가 아닌 음소끼리 결합된 변이음인 현실음이며, 본고에서 제시한 유음의 오류 유형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한국어에 많지 않은 2유형의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5·6유형의 단어들이 2음절 이상의 다음절어나 또는 실사와 허사가 결합되는 구(句)임을 볼 때, 한국어 교재에서 예들로 제시할 단어들을 2음절 이상의 다음절어로 제시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유음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가나다한국어학원(1997), 『가나다 KOREAN 1 for Chinese』, SISA Education.
- 고려대 한국어문화연구부 편(2002), 『한국어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성환(1992), 「표준발음지도 내용(I)」, 『논문집』27, 대구교대.
- 김성환(1997), 「표준발음지도 내용(II)」, 『논문집』32, 대구교대.
- 김성환(1999), 「표준발음지도 내용(III)」, 『논문집』34, 대구교대.
- 김성환(2000), 「표준발음지도 내용(IV)」, 『논문집』35, 대구교대.
- 김성환(2001), 「표준발음지도 내용(V)」, 『논문집』36, 대구교대.
- 김은애(2002), “발음 수업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1』, 명지출판사.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1), 『한국어1』,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한국어2』, (주)문진미디어.
-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3-1, 국립국어연구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6), 『한국어 I』중국어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5), 『한국어 발음』한글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9), 『처음 배우는 한국어 읽기』1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9), 『처음 배우는 한국어 읽기』2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만근(1997),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서울말 발음 독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관규(2002), 『개정판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이상억(1996), 『한국어1』중국어판, 한림출판사.
- 이철수(1993), 「發音 教育의 이모저모」, 『새국어생활』3-1, 국립국어연구원.
- 이화여대 언어교육원(199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I』, 이화여대 출판부.
- 이현복(1998),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 이희승·안병희(1994), 『고친판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임성규(1996), 「언어 지식을 이용한 발음 교육 방법 연구」, 『한국초등 국어교육』12-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임점식(1993), 「발음 교육의 이모저모」, 『새국어생활』3-1, 국립국어연구원.
- 전영우(2001), 『표준 한국어발음 사전』, 민지사.
- 전은주(1999),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추이진단(200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성학적 대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91), 『표준 한국어 발음연습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99), 『표준 한국어 발음연습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한재영(2001), 「한국어 발음 교육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허 웅(1993),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초록〉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신 호 철

본고는 한국어 유음을 학습하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의 발음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재들의 발음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 교재와 발음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발음 전문 교재로 구분하였다. 종합 교재에서는 발음 부분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교재별로 한국어 유음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고, 또한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발음 교육에 비중이 적어짐을 알 수 있었다. 발음 전문 교재에서는 각 자모(字母)별로 학습 방법과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각 음에 대한 예들의 체계적인 나열과 예시에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어 유음에 있어서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설측음과 탄설음의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의 기원이 있다. 즉 한국어의 유음에는 설측음 [l]과 탄설음 [r]이 있는데 반하여, 중국어의 유음에는 설측음 [l]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탄설음 [r]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국어의 유음이 실현되는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1유형은 [Vowel]+[l] 유형으로 “말, 달, 가을…” 등의 예들이 있고, 2유형은 [r]+[Vowel] 유형으로 “라면, 라디오…” 등의 예들이 있으며, 3유형은 [l]+[l] 유형으로 “별로, 홀러, 신라…” 등의 예들이 있으며, 4유형은 [l]+[Consonant] 유형으로 “펼펼, 알밤, 딸기…” 등의 예들이 있으며, 5유형은 [l]+[Vowel] 유형으로 “아이들이, 낫말은…” 등과 같이

실사와 허사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6유형은 [Vowel]+[r] 유형으로 “그림, 사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등과 같은 예들이 있다.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2유형, 5유형, 6유형들이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다. 2유형은 탄설음 [r]을 설측음 [l]로 발음 오류를 보이는 유형이고, 5·6유형은 설측음 [l]을 전후 음절들의 받침과 초성에 첨가해서 발음을 하는 오류 유형들이다.

한국어의 탄설음을 학습하는 데 긴장된 혀의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 방법이 필요하다. 혀를 빠른 속도로 윗니 뒷부분에 닿게 하는 훈련이나 자연적인 소리를 흉내내게 함으로써 보다 단기간 내에 탄설음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발음 오류를 보이는 유형들과 오류를 보이지 않는 유형들을 구분하여 예들을 제시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한층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오류 유형들을 보면 발음 학습의 예들로써 단음절어 예들보다는 다음절어 또는 짝막한 단문을 위주로 예들을 제시한다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핵심어】 유음, 발음 교육, 중국어 모어 화자, 설측음, 탄설음

<Abstract>

**A study of pronunciation education in
Korean liquid sound : focus on Chinese
native speaker.**

Shin, Ho-cheol

This study brings to a focus on analyzing the types that Chinese native speakers who are learning Korean liquid sound make an error in pronunciation and proposes an alternative plan.

The reason that Chinese native speakers feel difficult to tell lateral (sound) and flap (sound) when they study Korean liquid sound is due to the difference on the sound system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at is to say, Korean has lateral sound [l] and flap sound [r] as liquid sound, while Chinese has only lateral sound [l]. This makes Chinese native speakers difficult to pronounce Korean flap sound [r]. Korean liquid sound can be classified into 6 types as follows : 1 type is [Vowel]+[l](examples : [mal], [tal], [kail]). 2 type is [r]+[Vowel](examples : [ramjən], [radio]). 3 type is [l]+[l](examples : [pjəllo], [hillə], [silla]). 4 type is [l]+[Consonant](examples : [pəlpəl], [albam], [t'lgil]). 5 type is [l]+[Vowel](examples : [aidil-i], [natmal-in]). 6 type is [Vowel]+[r](examples : [kirim], [saram], [ariraŋ]). Among these 6 types, the second, the fifth and sixth ones are the types that Chinese native speakers have (much) trouble to pronounce. The second type is to mispronounce flap

[r] as lateral [l] and the fifth and sixth types are to mispronounce the front and rear syllable of lateral [l] added to a final consonant and an initial sound. If we can present the examples divided into the type that shows pronunciation error and the type that don't when we edit materials for teaching Korean, it can help foreigners to learn Korean easily. The present author thinks, in relation to the error types,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present multi-syllable words or simple sentences rather than simple syllable words as an example for studying of pronunciation.

【Key words】 liquid sound, pronunciation education, Chinese native speaker, lateral (sound), flap (sound)